

서울 청계광장서 진안 매력 알렸다

진안군, 트레저헌터 in 진안·진안방문의 해·진안홍삼축제 연계 통합홍보 캠페인 펼쳐

진안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진안군 통합홍보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인 '트레저헌터 in 진안'을 비롯해 '진안 방문의 해(2026~2027)', '진안홍삼축제'와 연계해 서울 시민들에게 진안의 대표 관광자원과 축제, 체험형 행사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마이산과 진안용담댐 등 진안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버스킹 공연을 함께 운영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높였으며, 플랫 돌리기 등 체험형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군은 오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2일간 마이산과 진안용담댐을



진안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진안군 통합홍보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중심으로 볼품(용의여의주)을 찾는 스토리텔링을 하여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인 '트레저헌터 in 진안'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방문객은 로컬바이브 앱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으며, 8월 28일까지 4,000원의 특별가로 구매

할 수 있다. 또한 행사 참여 확대와 사전예약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총 1,004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지역의료 공백 대응 '송경주 팀장' 최우수 수상

진안군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 편의 증진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군민 체감도 △담당자의 창의성·적극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정책 확산 가능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서면평가 점수와 직원 온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는 지역의료 공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보건행정과 송경주 팀장이 수상했다. 전국적인 공중보건 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 초고령 의료 취약지역임에도, 송경주 팀장은 전복도 및 보건복지부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벌여 2026년도 전복도 배치 의과 공중보건의사 13명 중 3명(23%)을 진안군에 확보했다. 우수는 진안고원 행복주택을 백운면, 성수면에 순차적으로 준공하고, 사업비 32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100세대 공급을 확정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

한 민원봉사과 신재석 팀장과, 이·미용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학생이·미용 요금을 1,107원(약 6.8%)인 하하고 일반 요금은 동결시켜, 물가 부담 속 상생안을 이끌어 낸 사회복지과 최진은 팀장이 수상했다.

장려는 △마지막 길 끝까지 함께하는 공영경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다(사회복지과 권지원 주무관) △'부귀산 전담대' 활용한 마이산 하늘길 개척(산림과 김상호, 김무성 주무관) △트루트랙 장수 전락으로 3분기 연속 정수를 탐 탐설 및 지방재정 확충 견인(동향면 장미옥 주무관) 사례가 선정되었다.

군은 수상자에게 등급에 따라 근무 성적평정 가점 또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총 2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장수군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추진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건이 접수됐다.

군은 온라인 국민투표와 공무원 투표를 통한 사전심사에 이어 적극행정

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우수·장려 사례를 각각 1건씩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의료지원과 원무팀의 '우리 아이 건강, 가까이서 지켜주세요' 소아청소년과 파견진료 운영'이 선정됐다.

장수군은 남원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 1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파견진료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폐쇄 위기에 놓였던 소아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보건사업과 원무팀의 '공중보건의사 감소 위기에 대응해 봉직의사 채용과 처우개선으로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막다'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는 농산업정책과 농업정책팀의 '사비로 사업 마쳤는데 대출 불가? 사전 대출심사제 도입으로 대출 불안감을 제로, 융자 실행은 적기에!'가 이름을 올렸다. /장수=고관호 기자

직업 체험으로 미래 꿈 키웠다

무주군,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대전 솔로몬파크 찾아 모의법정 등 체험

무주군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무주군은 10일 대전 솔로몬파크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꿈꾸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8세부터 13세까지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법 관련 직업군을 주제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 교육 테마공원인 대전 솔로몬파크를 방문해 모의법정 체험과 법 관련 직업 체험, 법무관 및 교정 관련 체험, 법 교육 등에 참여했다.

아동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법 조계 직업의 역할과 책임을 직접 살펴보고 직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판사, 변



호사, 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어 재미있었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주군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체험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교육·놀이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마을 돌봄서비스'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체험프로그램 사전 예약 진행

장수군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영환)가 10일부터 20일까지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핵심 체험프로그램 5종에 참여할 사전 예약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체험 프로그램은 장수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콘텐트로 구성됐다.

먼저 1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방송인 홍석천과 함께하는 '레드푸드 요리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장수한우와 오미자, 토마토, 사과 등을 활용해 파스타와 비타민 음료를 만들고, 직접 준비한 식재료를 더해 자신만의 맞춤형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다.

이어 1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사할 음식 장인 정호성님과 함께하는 '사할 음식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연잎밥과 제철 나물무침 등을 직접 만들어 건강한 식문화와 사할음식의 의미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12일 오후 3시에는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단합과 체력을 겨루는 '전국 한우 콘포 나르기 대회'가 펼쳐져 축제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레드푸드를 찾아라' 체험과, 축제 기간 4일간 진행되는 '크라운해태 과자로 장수한우사와 키즈뮤지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령면민의 장 수상자 2명 선정

진안군 마령면은 지난 7일 '2026년도 마령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애환장 수상 대상자로 황기인(66), 효열장 수상자 한권열(64)을 최종 선정했다.

마령면민의 장은 2001년 제정 이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공헌한 면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마령면민의 장은 오는 15일 제 59회 마령면민의 날에 수여될 예정이다.



애환장 황기인

효열장 한권열

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제15회 진안홍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성료

진안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제15회 진안홍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안군과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배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진안 문체체육회관을 비롯한 관내 8개 경기장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91개 팀, 1,365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은 진안홍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는 전국 생활체육배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이끄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이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 결과 남자 클럽2부 우승은 영수문팀, 클럽3부 마이산부(남자) 우승은 송파창스팀, 마이산부(여자) 우승은 엑시토타미이 차지했고, 홍삼부(남자) 우승은 전동클럽, 홍삼부(여자) 우승은 세종팩스팀 차지했으며, 참가 선수들은 수준 높은 경기와 스포츠맨십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아란곰의오케스트라 태권도원서 여름 교류캠프

무주군 '아란 곰의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가 10일부터 12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곰의 오케스트라 교류 캠프' 하나의 꿈, 하나의 음악'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캠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곰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캠프에는 무주를 비롯해 장수·부안·홍성 등 4개 지역 오케스트라 단원 150명과 지도자 60명 등 210여 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3일간 약기별 합주와 전체 합주를 중심으로 음악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다. 오라 프로그램과 태권도 공연 관람, 태권도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북의 역사

전주매일 캠페인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진안 응치전투

완주·진안 응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응치(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응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응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응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